

상반된 모습의 '중국 여성의 삶' 그려

장예모 감독 작품 <홍등>, <귀주이야기> 잇달아 국내 개봉

‘여성의 삶’을 영화 속에 담은 중국의 장예모(43) 감독의 영화 두편이 잇달아 상영되고 있다.

지난 1일 종로의 코아 아트홀에서 개봉된 <홍등>에 이어, 오는 23일 구정에는 <귀주이야기>가 개봉될 예정인 것.

중국의 제5세대 감독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예모 감독은 이미 그의 데뷔작인 <붉은 수수밭(88년)>과 <국두(90년)> 등에서 콤피를 이루었던 여배우 공리(28)를 이 두 작품에도 출연시키고 있다.

지난 91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<홍등>은 최초로 중국 본토와 대만, 홍콩 합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. 특히 이번 작품에는 대만의 명감독인 <비정 성시>의 후샤오셴이 제작과 기획을 맡았다.

1920년대 당시 중국사회의 권력을 둘러싼 세력간의 싸움을 봉건적인 부호의 네 첩의 암투를 통해 은유적으로 그리고 있는 영화 <홍등>은 봉건시대의 잔재인 일부다처제 속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왜곡 또는 희생되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.

‘홍등’은 집주인이 밤에 기거하는 방에 걸린다. 네 첩은 매일 매일 집주인이누구와



▲중국 본토와 홍콩과의 최초 합작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던 영화 <홍등>.

밤을 보낼 것인지 ‘당첨’을 기다려야 하며, 홍등이 밝혀진 첩은 주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발마사지를 최선을 다해 받도록 요구받는다. 또한 홍등이 밝혀진 첩에게는 다음날 식사 때 그의 식성대로 먹을 수 있도록 특혜가 내려지고 특히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살림살이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첩들은 서로 모함과 투기를 일삼는다. 이들에게 집주인외에 다른 남성과의 불륜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. 결국 이 여성들은 지배계급으로 대표되는 부호가 문 남성의 ‘성욕’과 대를 이어주는 생산의 도구로서만이 그 존재가 인정된다. 이러한 불합리한 가부장제에 맞선 송련

나약하기만 하다. 이러한 주체적, 능동적이지 못한 여성상을 장예모 감독은 그의 최신작 <귀주이야기>에서 일대 변신을 꾀하게 한다.

중국의 북서부 농촌지방을 배경으로 관료주의의 허구성을 꼬집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장예모 감독은 평범하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농촌여성 ‘귀주’라는 인물을 설정,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.

극적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출연자의 90%를 실제 농부들 캐스팅, 제49회 베니스 영화제



◀평범하지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농촌여성 ‘귀주’라는 인물을 내세워 적극적 여성상을 보여준 <귀주이야기>의 한 장면.

(공라 분)의 향거는 미치는 것으로 끝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지식인의 모습을 대변하듯

에서 황금사자상과 여우주연상을 차지했다.

◀남미경 기자